

제18기 kit학생홍보대사 임명

새내기 7명 “대학 홍보 알리미 역할에 최선을”

금오공과대학교 제18기 kit학생홍보대사 7명이 선정됐다.

그 주인공은

이기표(남·메디컬IT융합공학과 1년)

조재중(남·컴퓨터공학과 1년)

김민호(남·기계시스템공학과 1년)

김세민(여·화학소재융합공학부 1년)

성지원(여·화학소재융합공학부 1년)

이시은(여·경영학과 1년)

손수경(여·광시스템공학과 1년) 등 7명이다.



신임 홍보대사에 임명된 이기표 학생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 사회에 금오공대의 우수한 성과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it학생홍보대사는 대내·외 행사 의전지원, 홍보 책자 모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대학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T_ 054. 478. 7114 / F_ 054. 478. 7100

<http://www.kumoh.ac.kr>

금오공대 소식

2017 KUMOH LETTER / VOL.177





표지 사진
홍릉기 「금오 에덴」 (2016년 사진 공모전 당선작)

금오공대 소식
2017 KUMOH LETTER VOL. 177

발행일 2017. 7. 31.

발행인 총장

발행처 금오공과대학교

주 소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편 집 기획협력처 홍보전략팀 (054)478-7078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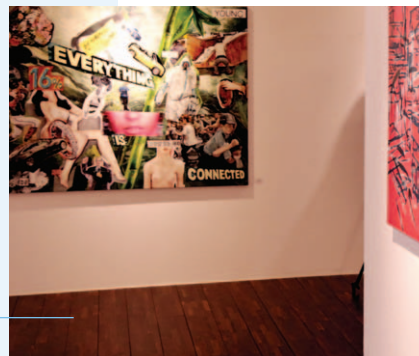


30



07

33



Focus

- 04 대학 축제 기간 성금모금, 금오종합복지관에 후원
구미장난감도서관 방문 나눔 봉사
경영학과 학생 40여 명, 농촌 봉사 구슬담

Together Kumoh 동문기업 탐방

- 08 서임교 前 총동창회장, (주)에스엘테크 대표이사

Issue

- 10 금오공대,故 이정연 학생 발전기금 기탁식 가져
지엠테크(주) 백기철 대표,
금오공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전달
LINC+ 사업 선정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5년 연속 선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교육국제화 역량평가 2년 연속 인증
2017 경북평생교육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건축학교육 인증 획득
kit 사진 연구반 창립 사진전시회 사진

People 교수

- 20 신소재공학부 박철민 교수팀,
고용량 이차전지용 전극소재개발
전자공학부 임재권 교수,
스승의 날 대통령 표창
기계시스템공학과 김준식 교수,
제27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컴퓨터공학과 김영학 교수,
한국정보과학회 공로상 수상
기계공학부 출신 김형수 씨,
카이스트 교수 임명



People 학생

- 24 지능구조설계 연구실 교수·학생, 우수 논문상 수상
IT융복합공학과 대학원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3회 세계발명혁신대전 학생 3개 팀 금상 수상
산업공학부 신나라 학생, 발명의 날 특허청장상 수상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이필호씨 미래부 장관상 수상

People 동문

- 28 대학원 총동창회 창립총회
김경미 경영학 석·박사 원우회장 선출,
모교발전, 동문화합 노력
토목공학과 총동문회, 후배 위한 명사 특강 개최

kit News

- 30 2017 학술전자정보 박람회 개최
2017년 성년의 날 행사 개최
금오공대, 경북 취·창업 박람회 개최
34 kit 진로·전공 탐색의 날 개최
금오공대-육군종합군수학교 협약 체결

Galleria

- 32 금오공대 갤러리

kit Love

- 35 후원의 집
기부
약정서
발전기금

대학 축제 기간 성금모금, 금오종합복지관에 후원 ‘시민 폴리마켓’ 운영, 축제 문화 개선

금오공대 총학생회



제34대 ‘동행’ 총학생회(회장 윤민석)는 5월 29일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을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민석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고현진 학생복지위원장, 황정민 전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금오공대 총학생회는 앞서 지난 ‘2017 대동제 축제’ 기간에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시민 참여형 ‘폴리마켓’을 열었다. 금오공대 총학생회는 폴리마켓을 비롯해 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다양한 체험 부스로 얻은 일부 운영비와 성금을 모아 이날 7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후원했다. 특히, 폴리마켓에 참여한 시민과 일부 학과 학생회가 자체 행사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성금에 보태 의미를 더했다.

윤민석 금오공대 총학생회장(28·기계시스템공학과 4년)은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통사고 등으로 학생들과 대학이 많이 힘들었다. 소모적인 대학 축제를 개선해 보다 발전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대학

구성원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축제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대석 금오공대 학생처장은 “최근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축제가 시민과 지역사회 공동체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다”며, “학생들이 내부적으로 자족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오공대 총학생회는 2015년 축제기간에도 국제개발구호단체인 더 프라미스 경북본부와 공동으로 성금을 모금해 네팔지진 피해지역의 임시학교 건립기금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구미장난감도서관 방문 나눔 봉사 지역사회 발전 기여 위한 노력 ”



5월에 이어 6월에도 학생들의 행복한 동행은 이어졌다.

6월 22일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후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학생회 임원 16명이 참석한 이번 나눔 활동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 물품을 후원하고, 구미중앙시장 내 장난감도서관으로 이동해 청소 및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은 “지역사회 공동체 확산에 노력하는 금오공대와 총학생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지역 기여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EAD SWEAT

경영학과 학생 40여 명, ‘농촌 봉사’ 구슬땀

충북 괴산서 3일 간 일손 도와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40여 명이 2박 3일간 충북 괴산군 장연면 일대에서 농촌 봉사 활동을 펼쳤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 이번 봉사는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 현장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손을 제공하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금오공대 학생들은 내실 있는 엠티(MT·Membership Training) 활동을 모색하던 중 충청북도의 ‘생산적 일손 봉사’

를 알고 봉사 활동을 갖게 됐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마을에 머무르며 사과 적과, 옥수수 손치기 등의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준우 금오공대 경영학과 학회장은 “학과 MT 활동을 보다 생산적인 단체 활동으로 진행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며, “학생 모두가 나눔과 배려의 소중함을 일깨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임교 前 총동창회장

kit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길...

“ 때로는
마음으로 느끼고
소통하는 감성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



‘남다른 모교 사랑’ 실천 지역사회 발전 위한 가교 역할

서임교 전 금오공과대학교 총동창회장(57·전자과 전산전공81, (주)에스엘테크 대표이사)은 동문들 사이에서 모교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가 가정과 회사, 모교 일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학교를 먼저 선택할 거 같은데요. 왜냐고 따져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요. 하하하하”

2014년, 당시 동창회장을 맡고 있을 때의 일화는 모교와 동문들 사이에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모교인 금오공대가 지역 기관 및 단체의 갈등(?)으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해, 각종 위원회와 대책 회의로 학교에 살다시피 했다. 오죽했으면 회사 직원들이 “사장님 결재 받으러 학교에 언제쯤 가면 될까요?”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 말이다.

“동문 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금오공대가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혹자는 그러더군요. 대충 자리나 채우고 지나가면 되지 뭐 그렇게 요란을 피우냐고요. 제가 동창회장을 안 맡았으면 그랬을 지도 모르죠. 마음이 가는 데로 했고, 다행히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어요.”

2년간의 임기 동안 힘든 고비도 많았다. 동창회장의 자격으로 의사결정 한 일부 안건이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모교의 현안문제로 거

래처와 중요한 미팅을 연기하는 바람에 클레임이 걸려 회사가 위기에 처한 적도 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격언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은 서 전 회장의 일면을 들여다 본 것일까? 다행히 임기 동안의 각종 현안문제와 회사일이 잘 풀렸다. 회사는 매출액이 올라 올해 초 회사를 키워 확장도 했다.

“요즘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가슴으로 느끼기보다 머리로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느끼고 소통하는 감성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교가 저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요.”

서 전 회장은 1981년 금오공대 전산전공(현재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1988년 졸업 후, 10여 년 간 외국계 기업 LCD장비제작 회사에서 근무했다. 경험을 바

탕으로 2009년 LCD, 반도체, 자동화시스템 연구 장비를 생산하는 (주)에스엘테크를 창업했다.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기업대표자협의회(금산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미니클러스터회장,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모교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가족은 부인 장 순희 씨와 2남을 두고 있다. 취미는 독서와 운동.

Prestigious universities in the world

금오공대, '故 이정연 학생 발전기금' 기탁식 가져

이용석 · 이성미 부모님, 아들 모교에 1억 원 기부 “모교 후배들이 아들의 꿈 이뤄주길…”

금오공과대학교는 4월 14일 고(故) 이정연 학생의 부모,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故) 이정연 학생 발전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발전기금은 지난해 1월,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故) 이정연 학생의 부모 이용석(국립공주병원 서무과 7급) · 이성미님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개인 사재의 일부를 기증했다.

고(故) 이정연 학생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꿈꾸는 촉망받는 인재로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년 1월,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났다. 평소 빌게이츠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 했던 고(故) 이정연 학생은 대학 진학 후, 봉사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며 희생과 봉사에 노력해 왔다.

고인의 이 같은 뜻을 사후에라도 이어주고 싶은 마음에 고(故) 이정연 학생의 부모님은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부모님 이용석 · 이성미씨는 “정연이는 평소 밝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착한 아이였다”며,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지만, 사랑했던 모교 후배들이 뜻을 이뤄주길 바라는 마음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정연 학생의 부모님은 앞서 지난해 3월, 금오공대에 2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해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학과장 이현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오공대는 이번에 전달된 8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더해 1억 원의 기금을 '이정연 장학금'으로 별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정연 학생 나무(글로벌관 앞 위치)



지엠테크(주) 백기철 대표,
금오공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전달

어려운 학생 수년째 묵묵히 지원,
“글로벌 인재 성장에 도움 되길…”

금오공과대학교는 대학 최고경영자과정(20기)을 졸업한 지엠테크(주) 백기철 대표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백기철 지엠테크(주) 대표이사는 금오공대로 유학 온 중국인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정을 듣고 흔쾌히 이번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조취화(26 · ZHAO CUI HUA) 학생은 “올해로 4년째인 유학생생활을 이번 장학금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며, “의미 있는 유학생생활을 통해 장차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수년째 묵묵히 장학금을 지원해 왔던 백기철 대표이사는 “모교인 금오공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영 금오공대 국제교류교육원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오공대 최고경영자과정 졸업생들은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천여만 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장학금을 기탁했다.

LINC+

사업 선정

개방형 산학융합캠퍼스 추진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금오공과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금오공대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성과 확산형 산학협력 체제 정착 △창의·융합·실무형 인재양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LINC+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추진되어 오던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후속으로, 신규 추진되는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이 더해진 사업이다. 8개 지표에 따른 1단계 포물러 평가 및 2단계 서면·대면 평가,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확정 등 3단계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55개교가 선정됐다. 대경강원권에서는 금오공대를 비롯해 총 12개교가 선정됐다. 2년간 사업 수행 후 중간평가에 따라 3년간의 추가 사업기간이 주어지는 2+3 형태로 진행된다.

금오공대는 ICC(Industry-Coupled Collaboration)센터 설립 및 개방형 산학융합캠퍼스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실현과 산학협력 대상 및 유형 확산을 위해 산학융합교육과정을 설치, 창의·융합·실무 교육 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LINC사업 4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서의 성과를 창출한 금오공대는 이번 LINC+ 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하는 산학협력 모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5년 연속 선정

2년간 사업비 21억2천만 원 확보
지역산업 선도하는 ICT 융합인재 양성 추진



금오공과대학교가 ‘2017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돼 2년간 사업비 21억2천2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금오공대는 이 사업의 전신인 ‘2013 국립대학운영성과목표제사업’부터 ‘2017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까지 모두 석권하며, 5년 연속 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은 국립대학이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2개 유형(대학 내 혁신 및 대학 간 혁신)으로, 이번에 발표된 ‘대학 내 혁신 유형’은 대학 규모 및 특성에 따라 4개 패널(Ⅰ패널: 거점일반대학, Ⅱ패널: 지역중심 일반대학, Ⅲ패널: 특수목적대학, Ⅳ패널: 교원양성대학)로 나누어 총 18개 국립대가 선정됐다.

Ⅲ패널에 선정된 금오공대는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Connected ICT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집중이수제, 미니대학 과정 등의 ‘혁신적인 대학 시스템 개편’ △ICT 융합교육 및 의료IT 융합전문 인력양성 모델 개발 등의 ‘학제 간 융합’ △전자, 기계 컴퓨터, 메디컬IT 등의 ‘전공 특화’ 등을 혁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희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은 “5년 연속 PoINT 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는 금오공대가 교육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한편, 국립대학으로서 지니는 역할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대학으로서 창의적 공학인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립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 2017년 사업비 3억7천8백만 원 확보
‘대학교육 기회’ 고른 배분 위한 전형 추진 ”

금오공과대학교가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3억7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의 내실화와 수험생의 대입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각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계획 및 현황, 전형 운영 여건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금오공대는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인원을 2017학년도 185명에서 2018학년도 300명으로 확대했으며, 고른기회전형 입학생에 대한 추수지도를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사업 선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광환 입학관리본부장은 “금오공대는 교육기회의 고른 배분과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고교생 진로탐색 활동에 적극 지원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립대학으로서 고교 교육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국제화 역량평가’ 2년 연속 인증

외국인 유학생 관리 모범 · 서비스 역량 우수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인증기간 3년, GKS 등 대학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금오공과대학교가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부여되는 ‘2016년도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의 인증 대학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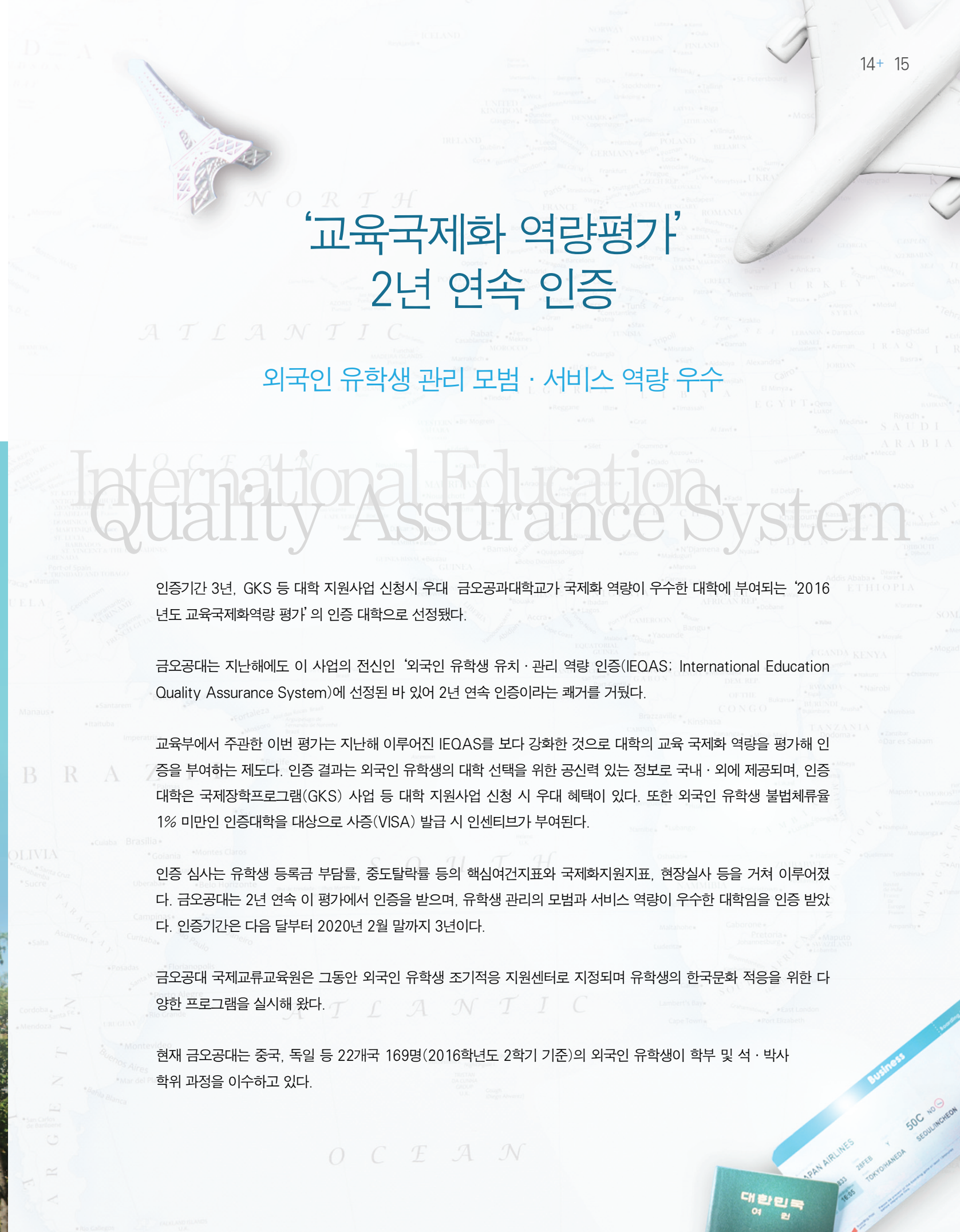
금오공대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의 전신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에 선정된 바 있어 2년 연속 인증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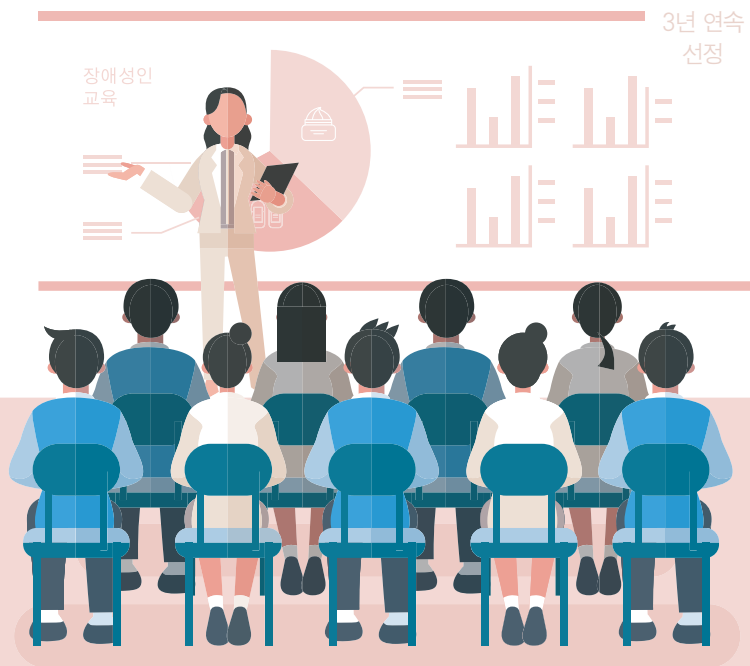
교육부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는 지난해 이루어진 IEQAS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대학의 교육 국제화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선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로 국내 · 외에 제공되며, 인증 대학은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사업 등 대학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이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인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사증(VISA) 발급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증 심사는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중도탈락률 등의 핵심여건지표와 국제화지원지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금오공대는 2년 연속 이 평가에서 인증을 받으며, 유학생 관리의 모범과 서비스 역량이 우수한 대학임을 인증 받았다. 인증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3년이다.

금오공대 국제교류교육원은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 지원센터로 지정되며 유학생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현재 금오공대는 중국, 독일 등 22개국 169명(2016학년도 2학기 기준)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부 및 석 ·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2017 경북평생교육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장애성인 교육 등 지역사회 공헌 기여



‘2017 경상북도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역의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금오공대 평생교육원은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신호균 금오공대 평생교육원장은 “장애성인의 계속 학습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를 발굴하고, 소외된 지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오공과대학교가
‘2017 경상북도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2017 경상북도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모든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기간은 4월 24일부터 약 7개월 간 시행되며, 선정된 기관은 6백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 건축 교육의 국제적 상호 인정 “국제적 수준 건축 인재 배출 기대”

금오공과대학교는 건축학부가 건축학교육 인증프로그램인 ‘건축학교육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에서 시행하는 건축학교육 인증은 국제 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력을 갖춘 건축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축학교육 인증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건축설계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대학 건축교육의 국제적 상호 인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내에서는 국제건축학교육인증협의체(캔버라어코드)의 회원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5년제 건축학과인 경우 건축학교육 인증을 획득하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인 실무수련 기간의 단축(4년

에서 3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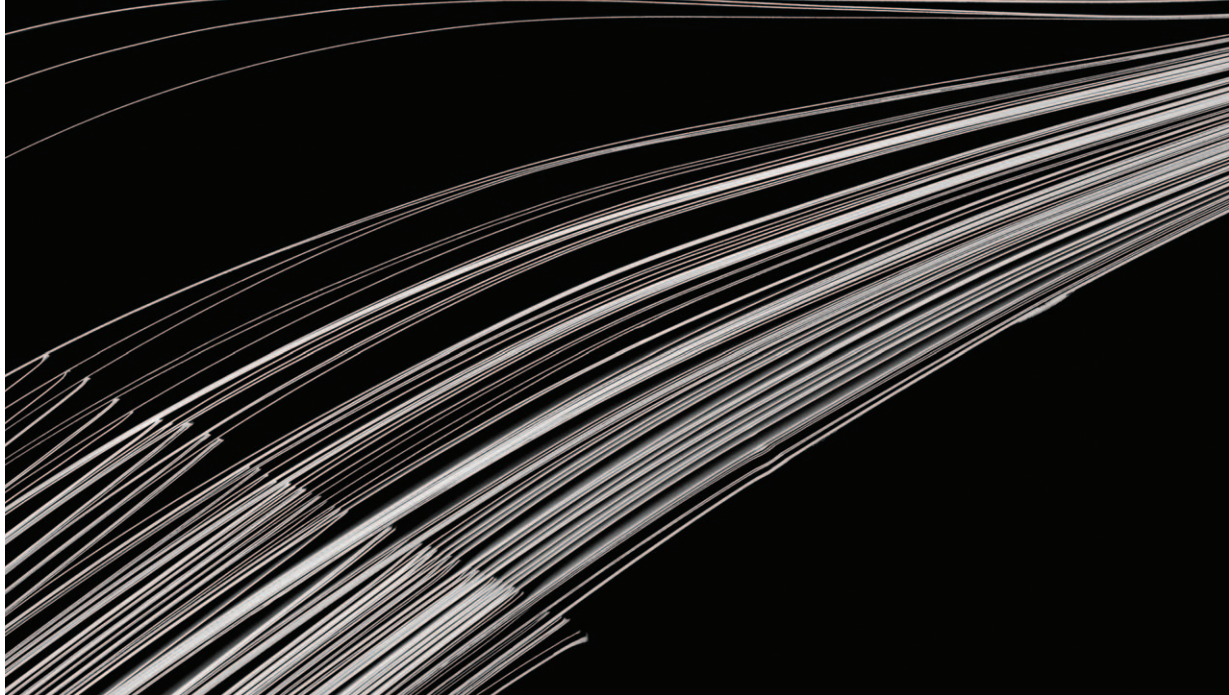
금오공대는 지난해 10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나온 인증 심사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올해 2월 최종 인증 통보를 받았다. 실사를 통해 특화된 건축학교육과 인증에 대한 교수진의 열정과 노력, 교수와 학생간의 활발한 소통과 친화력 등이 지역사회와 전문 인력배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건축학교육 인증 기획을 총괄한 안동준 건축학부 교수는 “이번 건축학교육 인증을 바탕으로 우수 학생 유치와 학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기본이 튼튼한 글로벌 전문 건축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이동구 作



◀ 이상운 作

kit 사진 연구반 창립 사진전시회 사진

평생교육원, 민웅기 교수 지도 수료생 5인 작품 전시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신호균) 'kit 사진연구반이 'Beyond/그 너머'란 주제로 구미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창립사진전(5인의 작품 총 53점)을 개최했다.



◀ 권미령 作

신소재공학부 박철민 교수팀 ‘고용량 이차전지용 전극소재’ 개발

신소재공학부 박철민 교수 연구팀(박아람, 이동훈 석사과정 연구원)이 리튬 및 나트륨 이온 이차전지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2차원 층상 및 3차원 프레임 결정구조의 주석계 화합물 전극소재의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금오공대 신소재공학부 전지신소재연구실(지도교수 박철민, 41)의 박아람(28, 석사과정) 학생은 3차원 프레임 결정구조의 주석-텔루라이드(SnTe) 화합물을 제조해 이를 고용량 리튬 및 나트륨 이온 이차전지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신소재 분야 최상위급 SCI 학술지인 ‘ACS 나노(ACS Nano*, Impact factor: 13.334)’의 온라인판 5월호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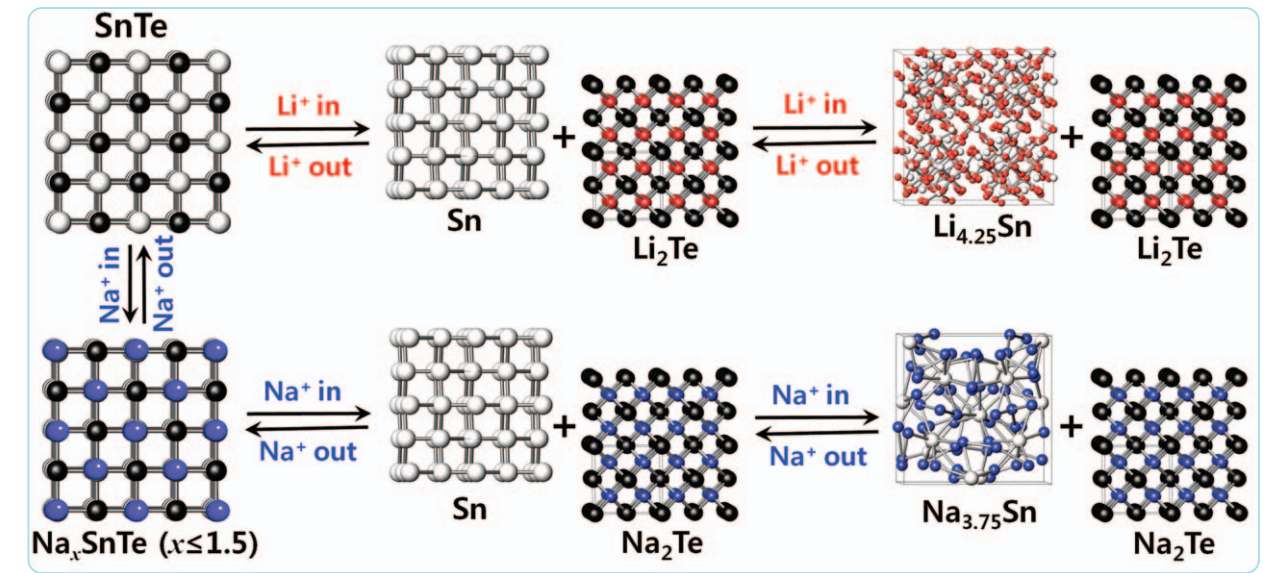
한편, 이동훈 학생(27)은 2차원 층상 결정구조의 주석-셀레나이드(SnSe)의 제조 및 고용량 리튬 이온 이차전지의 적용 연구에 성공했다. 이 연구도 신소재 분야의 최상위급 SCI 학술지로 평가받는

‘AC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 인터페이스(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Impact factor: 7.145)’에 게재됐다.

개발된 주석-텔루라이드(SnTe) 및 주석-셀레나이드(SnSe) 화합물 소재는 리튬 및 나트륨 이차전지의 고용량 전극소재뿐 아니라 화합물 반도체로서 전자산업 분야에도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민 교수는 “2차원 층상 및 3차원 프레임 결정구조를 갖는 주석-셀레나이드 및 주석-텔루라이드를 간단한 합성 방법으로 제조했다. 이를 고용량 리튬 및 나트륨 이온 이차전지용 음극소재로 적용한 것은 기존에 실리콘에 치중되어 있는 고용량 이차전지용 음극소재 관련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향후 고용량·고성능 이차전지 양산을 위한 실용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과는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동성 교수)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핵심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3차원 프레임 결정구조의 주석-텔루라이드(SnTe)의 리튬 및 나트륨이온 저장 및 탈리시의 반응메커니즘 모식도

* ACS Nano 誌

: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출간하는 나노 및 에너지소재 분야 최상위급 국제학술지(피인용지수: 13.334, 나노소재 분야 상위 3%, 2015년 기준)

◇ 논문제목: “Cubic Crystal-Structured SnTe for Superior Li- and Na-Ion Battery Anodes” 온라인판 5월호 게재

◇ 논문저자: 박아람(제1저자), 박철민(책임저자)

◇ 논문 Link: <http://pubs.acs.org/doi/abs/10.1021/acsnano.7b02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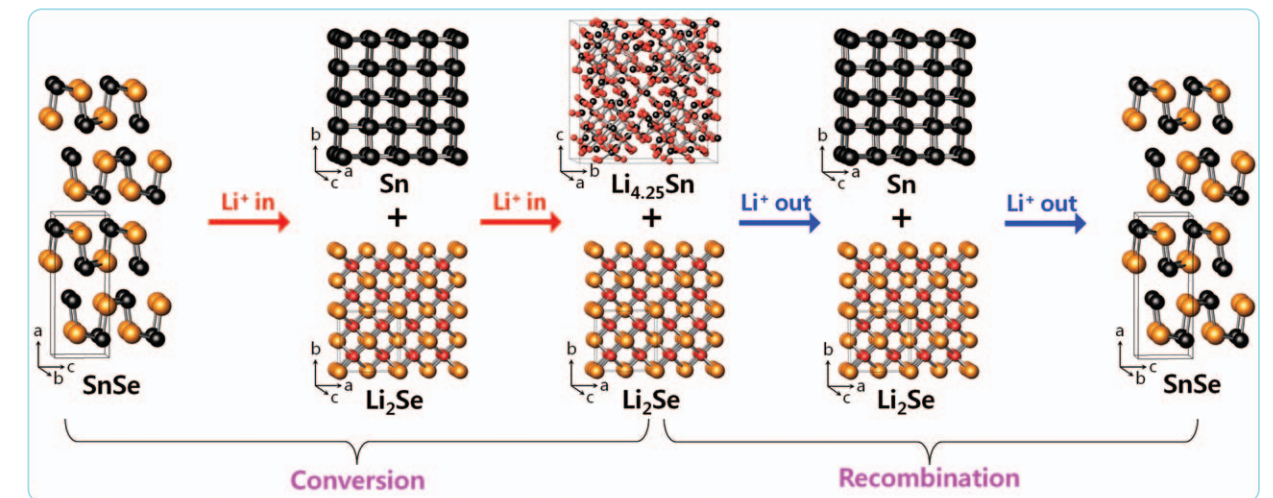
*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誌

: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출간하는 신소재 분야 최상위급 국제학술지(피인용지수: 7.145, 신소재 분야 상위 10%, 2015년 기준)

◇ 논문제목: “Tin Selenides with Layered Crystal Structures for Li-Ion Batteries: Interesting Phase Change Mechanisms and Outstanding Electrochemical Behaviors”: 5월호 게재

◇ 논문저자: 이동훈(제1저자), 박철민(책임저자)

◇ 논문 Link: <http://pubs.acs.org/doi/abs/10.1021/acsam.7b01829>



2차원 층상 결정구조의 주석-셀레나이드(SnSe)의 리튬이온 저장 및 탈리시의 반응메커니즘 모식도



전자공학부 임재권 교수 ‘스승의 날’ 대통령 표창



임재권 도서관장(61·전자공학부 교수)이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 우수 교원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991년부터 27년간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해 온 임 교수는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정보전자 및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왔다. 특히 도서관장으로서 독서인증제 및 독서클럽 활동을 장려하여 학생들의 도덕성과 인성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교수는 지역기업에 기술자문을 비롯해 다수의 연구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들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또한 NURI(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ACE(학부교육신진화선도대학)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국가 교육정책 추진에 일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경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구미시 정보화촉진위원회 등 지역 주요 정보화정책 심의 및 자문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임 교수는 미국 텍사스 A&M대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금오공대에 부임,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장, 정보전산원장, 디지털TV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금오공대 도서관장에 재임 중이다.

컴퓨터공학과 김영학 교수, ‘한국정보과학회 공로상’ 수상 UCWIT 2016 조직위원장 활동 등 기여 / 교육 및 연구 전념 ‘학회발전’ 견인



금오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영학 교수(56)가 한국정보과학회(회장 홍봉희)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영학 교수는 한국정보과학회 제27대 영남지부장으로서 효율적인 회무집행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펼쳐 학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1999년부터 금오공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해 온 김 교수는 활발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교육자로서 모범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교무처장·기획협력처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대학 발전을 위해 애써 왔다. 또한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주관한 UCWIT 2015 학술위원장과 UCWIT 2016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보과학에 관한 기술 발전과 보급을 위해 지난 1973년 설립된 한국정보과학회는 지난 40여 년 동안 컴퓨터 분야 국내 최고 학회로 거듭나며, 현재 35,000여명의 회원과 270여 개 이상의 단체 기관이 등록돼 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19일 201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에서 열렸다.

※ UCWIT? 한국정보과학회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웹 정보기술 학술심포지엄(Ubiquitous Computing and Web Information Technology)

기계시스템공학과 김준식 교수, ‘제27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창의적 연구 통해 우수 인재 양성 노력”



금오공과대학교 김준식 교수(46·기계시스템공학과)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27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전산구조공학회지에 게재한 ‘면의 위평함수를 고려한 보 구조물의 기계 및 열응력 해석’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에 선정된 김준식 교수의 연구는 건축, 토목, 기계, 항공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보 구조물에 대한 효율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학문적으로 생브낭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관련부

야의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식 교수는 “공동저자인 정용민(박사과정·30) 학생을 비롯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며,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시상식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진행됐다.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창의적 연구를 통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국내 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금오공대 기계공학부 출신 김형수 씨, ‘카이스트 교수’ 임명 기계공학과 유체역학 분야 전공, “물리·공학적 현상에 관심, 연구 중점”



금오공과대학교 졸업생 김형수(37·기계공학부 99학번)씨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에 임명됐다.

올해 3월부터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유체역학 분야의 조교수로 재임 중인 김 교수는 실험유체역학 방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및 매크로 크기에서 일어나는 물리 및

공학에 대한 유체역학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핵융합발전기(Tokamak) 내벽의 유체 막박 안정성 평가, 자연 모시된 유체와 고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마랑고니 효과를 이용한 입자 코팅(3차원 프린트 응용) 및 이물질 세척, 복잡유체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약물 전달 및 표면 세척에 응용가능) 등을 수행했다.

최근 4년간(2013~2016년) 박사후 연구과정 및 연구과학자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Howard A. Stone 교수 랩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연구 주제를 주도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유동장 가시화 기법을 이용해 복잡유체 계면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한 실험 및 이론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우리나라 공학 분야의 영원한 숙제 중 하나가 원천기술 개발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류에 편승하는 연구를 지양하면서 물리·공학적 현상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 독립적인 연구 분야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 고향인 김 교수는 2006년 금오공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취득한 후,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능구조설계 연구실 교수 · 학생, 우수 논문상 수상

대한기계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서 발표, ‘풍력 에너지 시장 확장에 기여’ 기대



기계시스템공학과 지능구조설계 연구실의 김준식 교수(46)와 이기준(25·석사과정) 학생의 2016 대한기계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명은 ‘점근해석기법에 기초한 국소변형모드를 고려한 고차 보 모델’이다. 이는 초대형 풍력 블레이드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자유진동해석 시에 발생하는 쉘 변형 모드를 고려한 고차 보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다. 실제 블레이드는 모델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

산 비용이 많이 드는 쉘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석하지만, 점근 해석기법을 이용해 자유도가 대폭 감소한 고차 보 모델의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바탕으로 풍력 에너지 시장의 확장 및 새로운 투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도 재료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풍력블레이드의 단면해석을 빠르게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는 김준식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이기준 학생은 “함께 고생하며 이번 연구를 이끌어 주신 김준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구조해석 연구 분야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한기계학회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와 규모를 인정받는 학회로, 현재 약 2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료 및 파괴, CAE 및 응용역학, 동역학 및 제어 등 총 13개 전문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 우수 논문상 시상식은 5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7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렸다.

IT융복합공학과 대학원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산의학 분야’서 IT융복합공학과 3명 수상

IT융복합공학과 대학원생이 ‘제6회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EDISON) 소프트웨어 활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거뒀다. 수상자는 금오공대 IT융복합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아울리아 카마스(25·인도네시아) 학생으로, 이와 함께 석사과정의 정다운(23), 김창현(25) 학생도 각각 특별상(대한생리학회장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이 대회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나노물리, 계산화학, 구조동역학, 전산설계, 전산의학 등 5개 전문 분야에서 대학(원)생들의 참가신청을 받았다. 참가 학생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든 실전경험 교육 소프트웨어인 ‘EDISON’이라는 슈퍼컴퓨터 플랫폼으로 가상연구, 논문작성 실력을 겨뤘다. 금오공대 학생들은 전산의학 분야에서

우수한 소프트웨어 활용 성과를 거두어 3개 부문에서 입상했다. 아울리아 카마스 학생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대회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의학 및 의공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도교수인 임기무 메디컬IT융합공학과 교수는 “국내 유수의 의학·약리·공과대학원생들과 겨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컴퓨터 기반의 생리·의학 관련 연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아울리아 카마스 학생



석사과정
정다운 학생



석사과정
김창현 학생

‘제3회 세계발명혁신대전’ 학생 3개 팀 금상 수상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OLD

14개국 246점 출품,
출전 팀 전원 수상 ‘쾌거’
‘토론토국제발명선진기술협회
특별상’ 도

‘제3회 세계발명혁신대전’에서 학생 3개 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4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4개국 총 246점이 출품됐다. 금오공대는 총 3개 팀이 출전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학생들은 금상과 더불어 토론토국제발명선진기술협회에서 주는 특별상도 함께 수상했다.

수상 작품은 ‘운동교정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 장갑(이승민·기계시스템공학과 4년, 정민주·기계공학과 3년)’, 후방 표시 레이저 보정 및 자동 사고 접수 시스템(김신호·기계시스템공학과 4년, 김준성·기계시스템공학과 3년), ‘해양사고 구조신호 발전기(정동훈·기계시스템공학과 4년)로, 금오공대 융합형 프로 메카트로닉스 인력 양성 사업단이 학생들의 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운동교정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 장갑을 발명한 이승민 학생은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 양 손 압력이 균일하도록 안내해 주는 장갑을 통해, 근력 운동 시 균형을 맞추고 자세를 교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세계 각국 발명가들과 교류하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업단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금오공대 융합형 프로 메카트로닉스 인력 양성 사업단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발명을 통한 다양한 성과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공학부 신나라 학생,
발명의 날 ‘특허청장상’ 수상

창의적 아이디어, 지역기업에 기술 이전 성과 LINC+ 사업단 및 창업교육센터 통해 활발한 발명·창업 지원

산업공학부 4학년 신나라 학생(지도교수 최성대)이 ‘제52회 발명의 날’ 발명 유공자로 선정돼 6월 14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신나라 학생은 금오공대 LINC+ 사업단과 창업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 창업특강, 멘토링, 융합형캡스톤디자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명·창업 분야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또한 금오공대 산업공학부의 디자인공학 전공에서 운영하는 치즈(CHEESE-Creativity, Human, Emotion, Experience, Solution, Evaluation) 프로그램과 대학 창업동아리 등에서 창의·발명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 결과, 제5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경진대회 은상, 2016 대학창의발명대회 우수상, 제9회 중국국제발명전시회 은상 2회 등 국내·외 유수의 대회에서 입상했다. 2015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는 은상과 특별상 등 2관왕을 수상하며 발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 기업과 2건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

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신나라 학생은 “생활 속의 불편한 점을 디자인과 접목시킨 발명 활동에 노력해 왔다”며, “발명·창업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LINC사업단과 창업교육센터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LINC+ 사업단 부단장 김영형 교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발명·창업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오공대는 제48회,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도 특허청장상(하재상, 전자공학부 졸업), 한국발명진흥회장상(최현진, 소재디자인공학과 졸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박현규, 기계시스템공학과 졸업)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금오공대는 LINC+ 사업단과 창의교육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발명·창업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이필호씨
‘미래부 장관상’ 수상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이필호(지도교수 장영찬) 연구원이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CT 미래인재포럼 2017’에서 미래창조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미래인재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ИTP),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ITRC)등이 주관하고 있다.

ICT 미래인재포럼 2017, 창의인재 평가부문 최우수상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기술이전 주도

금오공대 전자공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이필호 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SCI(E)급 논문 3편과 특허 2건을 비롯해 4건의 기술이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4건의 기술 이전은 산업체 양산에 적용되며, 관련 기술 또한 IEEE 논문에 게재 추진 중이다. 또한 국제 저명 학회인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와 ISCAS(회로 및 시스템 국제학술대회)에서 관련 논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필호 연구원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에서의 연구 활동이 SCI 논문 게재 및 기술 이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 연구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민·군융합복합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성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역 산업 진흥과 지역의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군융합복합 연구 중심 센터로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인재포럼과 함께 열린 ‘2017 월드 IT쇼’에서는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의 연구 성과가 전시됐다. 월드 IT쇼는 국내·외 ICT 관련 기업의 혁신적 신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다. 국방 및 군 관련 연구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군융합복합 특성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이번 전시를 통해 연구 및 개발된 기술·특허 등을 소개하고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학원 총동창회 창립총회



금오공과대학교의 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컨설팅대학원, 교육대학원이 뭉쳐 대학원 총동창회를 발족했다.

4개 대학원 관계자들은 6월 22일 금오공대 디지털관 시청각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대학원 총동창회를 발족했다. 초대회장에는 원종욱(경영학과, 사진 좌측) 금상대표가 추대됐다.

김경미 경영학 석·박사 원우회장 선출 “모교발전, 동문화합 노력”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 석·박사 원우회 신임 원우회장에 김경미 대표가 선출됐다.

김경미 신임 원우회장은 “금오공대 경영학과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5백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하고, 졸업한 인재들은 지역의 든든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재들이 개인의 발전과 모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우회도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우회는 모교에 발전기금 5백만 원을 전달해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토목공학과 총동문회, “후배 위한 명사 특강 개최”

토목공학과 총동문회(회장 김대환)는 5월 31일, 대학 글로벌관과 구미 시내 영화관에서 재학생 격려 행사의 일환으로 “명사 초청 특강 및 단체 영화 관람”을 진행했다.

고형철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을 초청한 특강에서는 ‘토목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 경험을 들려주며 투철한 직업 의식 등을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이어진 단체 영화 관람은 중간고사 등으로 지친 재학생들을 응원하고자 준비됐으며, 행사 시작 전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참석한 후배들에게 나눠주며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하였다.

토목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과 졸업 동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대환(86학번, ㈜영동개발 대표이사) 총동문회장, 김영체(87학번, ㈜진술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정제원(87학번, ㈜태우건설 대표이사) 총동문회 부회장을 포함한 동문들과 이진덕 토목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토목공학과 총동문회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0월 28, 29일에는 “2017 금오공과대학교 토목인의 날”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오공대 토목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17 학술전자정보 박람회’ 개최

국내·외 학술 전자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2017 학술전자정보 박람회’가 5월 23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박람회는 금오공대 도서관이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7년 성년의 날’ 행사 개최

“올바른 가치관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금오공대, ‘경북 취·창업 박람회’ 개최

도내 우수 기업 100여 곳 참여,
예비 창업가 위한 창업 관련 종합 컨설팅도 제공

금오공과대학교가 ‘2017 경상북도 우수기업 청년 취·창업 박람회’를 6월 15일 교내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금오공대가 구미상공회의소, IBK기업은행과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북도내 기업 100여 곳이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기업과 지역 우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기술 유망기업(스마트 팩토리, 자율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이 참여해 우수 인력 채용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면접 및 채용 상담이 이루어지는 채용관을 비롯해, 일자리 사업을 안내하는 기관 홍보관, 전문 취업 컨설턴트 1:1 코칭을 진행하는 취업컨설팅관 등이 마련돼 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창업 희망자들을 위한 창업지원제도 소개, 자금조달 방법 안내 등 창업 관련 종합 컨설팅도 함께 제공돼 예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박상희 금오공대 취업지원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는 직무별 채용과 구성을

통해 기업 중심이 아닌 직무 위주의 구직자 맞춤형으로 구성했다”며, “취·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옥 작가 초대전



후이즈후 초대전



‘kit 진로 · 전공 탐색의 날’ 개최

지역 5개 中, 500여명 학생 참가 ‘호응’
자유학기제 일환 ‘지역사회 기여’



금오공과대학교는 5월 23일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kit 진로 · 전공 탐색의 날’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오중 · 도개중 · 산동중 · 선산중 · 해평중 등 지역 읍 · 면 소재 5개 중학교 500여 명이 참여했다.

금오공대 출신 벤처기업가(하재상 다락방 대표 · 대한민국인재상 수상), 지역 인사(곽영호 경북농업기술원 기술국장, 시진철 북경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 대학교수, 언론인, 스토리텔링 작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크콘서트 형식의 ‘지식나눔 발전소 (분야별 직업인) 특강’과 계명대 등 지역 6개 대학이 함께 참가한 진로 · 전공 탐색 기회도 제공됐다.

금오공대는 공과계열 중심의 미래형 융 · 복합 분야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금오공대 육군종합군수학교 협약 체결

kit융합기술원, 국방 ICT 공동연구 추진
학술 연구 교류 및 軍 발전 위해 협력



육군종합군수학교(학교장 직무대리 이일동 준장)와 국방 ICT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협약을 5월 16일 체결했다.

대전 자운대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동성 금오공대 kit융합기술원장, 이일동 육군종합군수학교 준장(육군종합군수학교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 ICT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술 교류를 통해, 우리 군의 미래 발전 방향 등에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금오공대는 kit융합기술원과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가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육군종합군수학교는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 부대로 1948년 병참교육단으로 창설돼 지난 해 창설 68주년을 맞이했다.

♥ (재)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 후원의 집을 소개합니다.

연번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업종
1	거제복집	김영자	054) 462-0096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49	한식(북어)
2	공대상가	황태진	010-6603-3007	경북 구미시 대학로39	상가
3	금오산성숯불갈비	윤숙자	054) 457-7500	경북 구미시 산업로224	한식
4	금오산한우마을	김현숙	054) 473-8688	경북 구미시 옥계남로7-5	한식
5	동구미자동차정비	전기준	054) 476-3300	경북 구미시 거양길 242	차량 정비
6	미쉐린 타이어서비스센터	김창일	054) 462-9012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345	타이어
7	베스트 샵	황원재	054) 474-8877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24길 49번지	LG 가전
8	본도시락 옥계점	박희열	054) 474-4285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74	한식
9	삼성특판	장세광	054) 464-4141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271	가전
10	성피부과	성준제	054) 455-3393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4 멀티복합상가	의료
11	신념종합상사	박충근	054) 475-0980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35길 12-12	건축 자재
12	신동아 인쇄기획	김진순	054) 464-3500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2길 5-2	제본 인쇄
13	에코숨	석주윤	054) 471-4491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대 벤처창업관 204-1호	제조
14	울타이어	김창일	054) 462-9012	경북 구미시 양호동 248번지	타이어
15	원조쌈밥	윤정이	054) 441-1851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20길 4	한식
16	포항가자미회	이정태	054) 451-3433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97	일식(회)
17	한려수도	이갑선	054) 457-6900	경북 구미시 형곡서로121	일식(회)
18	한우명가 육림촌	조정운	054) 474-3030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982	한식
19	황강장어	김선미	054) 455-4783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3길 15	한식(장어)
20	(주)성윤투어	정성윤	054) 472-5900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31길6 2층	여행사
21	(주)해피투게더투어	이태식	010-8923-9863	경북 구미시 아은로455 삼성빌딩 3층	여행사

※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의 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발전기금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 별	모 금 액
2017. 1. 1. ~ 2017. 6. 30.	418,608천원

기탁하신 분

(2017. 1. 1. ~ 2017. 6. 30.)

5백만원 이상

삼성전자(주)	200,000,000원	금오공대 컨설팅대학원일동	7,230,448원
이용석 학부모	80,000,000원	세종하이텍(문홍모 대표)	7,000,000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故이정연학생)		최경과정 총동창회일동	5,000,000원
하영철(건축학부 교수)	23,000,000원	(주)아이엔티텍(정진형 대표)	5,000,000원
신재학(구미강동병원 원장)	12,312,320원	이재준(토목공학과 교수)	5,000,000원
금오공대(구)공단동 사택관리위원회	10,028,222원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오피니언리더 1기 일동	5,000,000원
(주)에이시스템(최은오 대표)	10,000,000원		

기탁하신 분 (2017. 1. 1. ~ 2017. 6. 30.)

1백만원 이상

TTC EDU	3,376,880원
(재)삼성복지재단	3,300,000원
(주)대송(박중하 대표)	3,000,000원
이현수(산업공학부 교수)	2,400,000원
김상옥(산업공학부 교수)	2,200,000원
이재원(응용수학과 교수)	2,000,000원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도예반일동	2,000,000원
(주)장원테크(박세혁 대표)	2,000,000원
(주)아성(최상관 대표)	2,000,000원
지엠테크(주)(백기철 대표)	1,500,000원
백호진학부모(전자공부 백민경 학생)	1,100,000원
홍성옥(기전공학과 교수)	1,000,000원
김영(전자공학부 교수)	1,000,000원
이승희(경영학과 교수)	1,000,000원
(주)영진하이텍(김영호 대표)	1,000,000원
(주)드림아이앤씨(김종삼 대표)	1,000,000원
대운엔지니어링(주)(박봉철 대표)	1,000,000원
위드시스템(주)(김명준 대표)	1,000,000원
(주)세움정보기술(김정호 대표)	1,000,000원
황태진(금오공대상가)	1,000,000원
(주)메디솔(최운하 대표)	1,000,000원
(주)세진프로원(김도형 대표)	1,000,000원

50만원 이상

신동아 인쇄기획(김진순 대표)	900,000원
미세린경북서비스센터(김창일 대표)	800,000원
데이터콤(강전학 대표)	600,000원
포항가자미회(이정태 대표)	600,000원
하나투어 옥계점(정성운 대표)	500,000원

50만원 미만

(주)해피투게더투어(이태식 대표)	400,000원
금오산한우마을(김현숙 대표)	400,000원
거제복진(김영자 대표)	400,000원
양대호(직원)	400,000원
본도시락 옥계점(박희열 대표)	300,000원
이영순(전자공학부 교수)	300,000원
박병태(사무국장)	300,000원
(주)에코숨(석주윤 대표)	300,000원
윤정이 원조쌈밥(윤정이 대표)	300,000원
권용철(환경공학과 권주형 학부모)	248,000원
베스트삼 옥계점(황원재 대표)	200,000원
육림춘(조정은 대표)	200,000원
김용원(직원)	180,000원
한상규(직원)	180,000원
김도형(환경공학전공 '98 동문)	120,000원
한희종(직원)	120,000원
나윤미(직원)	120,000원
권승운(직원)	120,000원
양병삼(전자공학부 양정호 학부모)	120,000원
정재훈(직원)	110,000원
방대석(화학소재융합공학부 교수)	100,000원
홍강우 외 14명	400,000원
김동성(전자공학부 교수)	60,000원
배호균(소프트웨어공학전공 '03 동문)	60,000원
김국조(직원)	60,000원
이명열(기계공학과 '12 동문)	60,000원
진종영(산업경영학과 '96 동문)	60,000원
안태욱(컴퓨터공학과 '94 동문)	60,000원
최현주(메디컬IT융합공학과 윤지호 학부모)	60,000원
정재환(구미시민)	30,000원
정창섭(구미시민)	30,000원

50만원 미만

이화섭(구미시민)	30,000원
신무경(구미시민)	30,000원
이재진(구미시민)	30,000원
박근경(구미시민)	30,000원
최주식(구미시민)	30,000원
홍성화(구미시민)	30,000원
김상희(구미시민)	30,000원
손정희(구미시민)	30,000원
최인웅(구미시민)	30,000원
안학기(구미시민)	30,000원
박배덕(구미시민)	30,000원
김다정(구미시민)	30,000원
김영민(구미시민)	30,000원
노성은(구미시민)	30,000원
권지혜(구미시민)	30,000원
현설아(구미시민)	30,000원
이정훈(구미시민)	30,000원
박명운(구미시민)	30,000원
현재진(구미시민)	30,000원
황현동(구미시민)	30,000원
박현영(구미시민)	30,000원
이정현(구미시민)	30,000원
윤현미(구미시민)	30,000원
박정원(구미시민)	30,000원
최수정(구미시민)	30,000원
정원영(경영학과 '10 재학생)	2,809원

금오공대 소식지 구독자들에게

(재)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은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금오공과대학교의 학술연구기금, 도서기금, 장학기금,
연구기자재기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대학 발전기금 참여 방법]

기부의 형태 :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도서
참 여 방 법 : 계좌이체
(농협은행 785-01-037878 예금주 :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대구은행 504-10-103390-1 예금주 :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약정번호 :

기부자명 ☐ 익명희망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주소	(우 -)		연 락 처	자택 H/P	
약 정 자 구 분	동문	☐ 학부(과) _	☐ 대학원 _	☐ 최경과정 (제 기)	
	기업체	회사명 _		대표자 _	
	학부모	학생성명 _		학부(과) _	
	교직원				
약정금액	금 원 (₩)	추 천	☐ 교수	☐ 직원	☐ 기타
참 여 방 법	☐ 직접납부 농협은행 785-01-037878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 CMS 자동이체 ☐ 급여이체 (교직원에 한함, 동의서 작성)				
	예금주	(인/서명)		거래 은행	
	계좌번호			이체일	1일 15일
	납입기간	금 원씩(회) (년 월 ~ 년 월까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동의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서명			
기부금종류	☐ 현금	☐ 유가증권	☐ 부동산	☐ 기타	
기부금용도	☐ 대학사랑기금 ☐ 장학기금 ☐ 지정장학기금(학과명 :) ☐ 대학문화기금 ☐ 시설확충기금 ☐ 도서기금 ☐ 학술연구기금 ☐ 연구기자재확충기금 ☐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은 (재)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하고 기부함에 있어 기부금 입금 처리 및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부금 입금 처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전화번호, 이메일, 기부내역)등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금오공과대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기금으로 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자

☞ 서명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장 귀하
금오공과대학교 총 장 귀하



kit의 밤아경 (2016사진공모전 우수상 / 서종임)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발전기금 담당자 귀중

3 9 1 7 7

대학발전기금의 종류 및 용도

학술 연구 기금	학술 연구 지원, 국제 학술 교류 지원, 교수 해외 파견 지원, 공동 연구지원, 저명 교수 초청 지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
도 서 기 금	대학 도서관의 국내외 학술 도서의 구입과 각종 문헌의 확보 및 도서 관리의 전산화를 기하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장 학 기 금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외국인장학기금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연구기자재기금	첨단 과학과 기초 과학의 연구 및 교수에 필수적인 최신 연구 기자재를 확충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시설 확충 기금	교육 및 연구 시설과 후생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안락한 교육 여건을 조성
대학 문화 기금	학생들의 대학 문화 활동에 편의를 도모
대 학 에 일 임 기	금오공대 우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금오공대에 위임 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경비 등

발전기금 납부방법

방 문 납 부	직접 금오공대 기획협력처(본관 601호)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무 통 장 입 금	농협은행 785-01-037878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또는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로 입금하시고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CMS 자동이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이체 가능

※ 현금 이외의 현물(주식, 부동산, 소장품 등) 기부 시 기획협력처(054-478-7080)으로 연락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개 인 기 부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법 인 기 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단, 2009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상속재산기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